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1.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2.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소비자의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융감독원의 보도참고자료)



※ 본 자료는 금융감독원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

(1)

제목 :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사 례

● 사회초년생 이○○(28세)씨는 3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결제 일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신용등급이 7등급으로 하락하였다. 결혼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3천만원을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때서야 신용등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였다.

● 직장인 김○○(38세)씨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하였는데, 신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할부금을 연체하여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하락하였다. 전세금 마련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신용대출 받고자 하였으나 A은행으로 부터는 대출을 거절당하였고, B은행으로 부터는 3등급인 동료직원에게 비해 2%p 높은 대출금리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평소 신용관리를 소홀히 한 것을 후회하였다.

꿀 팁

☞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을 실천해 보세요!

① 평소 자기 신용등급에 관심 기울이기

신용등급은 금융거래에 있어 신분증과도 같습니다. 대출 가능여부는 물론 대출한도,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본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등급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기

연체정보는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평점이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만큼, 좋은 신용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③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등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를 피하는 첫 걸음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벗어난 카드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안

전판이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④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기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 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⑤ 과도한 빚은 고통의 시작임을 명심하기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입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과도한 채무는 가계운영이나 개인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연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용등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는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⑥ 주거래 금융회사 및 자동이체 이용하기

거래 금융회사를 자주 바꾸는 것보다는 주거래 금융회사를 정해 꾸준히 이용하는 것이 신용등급에 유리합니다. 신용등급은 보통 신용조회회사(CB)에서 산정한 것을 바탕으로 각 금융회사에서 거래실적 등을 반영, 다시 산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주의로 인한 연체를 피하기 위해서는 카드대금이나 통신·공공요금 등 주기적으로 납부하는 대금은 가급적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⑦ 타인을 위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내역이 신용조회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만큼,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⑧ 대출 금융회사 신중하게 결정하기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등급 산정시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의 대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이 있을 경우 은행 대출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회사를 정할 때에는 대출 가능성이나 금리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⑨ 신용평가 가점제 적극 활용하기

신용조회회사들은 신용평가지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거나 금융거래실적이 많지 않은 사람은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신용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⑩ 신용관리체험단 활용하기

신용조회회사들은 현명한 신용관리요령 등을 알려주는 신용관리체험단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운용하거나 운용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신용관리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올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목 :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

사 례

-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범은 검찰 수사관을 사칭, 검거한 범인이 피해자의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어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하니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면 안전하다고 기망하면서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유도
- (대출빙자형①) 사기범은 00캐피탈을 사칭,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진행비 및 선납이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송금하자 이를 편취한 후 잠적
- (대출빙자형②) 사기범은 00은행을 사칭, 저금리로 정부지원자금을 받게 해준다고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기록이 있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대부업체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 상환을 사기범이 확보한 대포통장으로 유도**하고 이를 편취
- (납치·협박형) 사기범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사채빚 5천만 원을 갚지 않아 납치**하였다. 즉시 송금해 주지 않으면 아들을 마취시켜 장기를 적출하겠다”라며 **협박**
- (대포통장 확보형)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의 채용공고를 보고 구직을 신청하였다가 **급여계좌 등록 및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네주자 **대포통장으로 이용**

꿀 팁

☞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꼭 기억하세요!

①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 의심

검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의 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부기관을 사칭,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의 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므로 이러한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사실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검찰청(☎02-3480-2000), 경찰(☎112), 금감원(☎1332)

② 전화·문자로 대출 권유받는 경우 무대응 또는 금융회사 여부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우선 확인한 후,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http://www.fss.or.kr>)
대출모집인 등록 조회(<http://www.loanconsultant.or.kr>)

③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시 보이스피싱을 의심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이라고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됩니다.

④ 저금리 대출 위한 고금리 대출 권유는 100% 보이스피싱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고금리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또한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납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자녀가 다쳤거나 납치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급하게 금전을 입금하기 보다는 먼저 준비해 둔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⑥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 요구시 보이콧 의심

정상적인 기업의 정식 채용절차에서는 급여계좌 개설 또는 보안관련 출입증 등에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및 금융거래정보(비밀번호, 공인인증서, OTP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

⑦ 가족 등 사칭 금전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가족 및 지인 등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⑧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받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클릭하면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 악성코드 감염은 금융거래 시 파밍 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므로 이러한 파일이나 문자는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악성코드 치료 방법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사이트>“알림마당”메뉴>공지사항 108번 게시글 참고

⑨ 금감원 팝업창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시 100% 보이콧 의심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시,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며, 이를 클릭하면 보안승급을 위해서라며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라고 요구하면 보이콧(파밍)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⑩ 보이콧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